

치매 노인 응급 처치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

치매 노인은 일반인보다 응급상황이 잦게 발생할 수 있다. 자신의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므로 응급 상황 발생 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길동 노인요양병원 홍성만 원장은 “치매 노인의 경우 응급 상황이 생길 시 보호자와 쉽게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개인의 신상을 적어 놓은 팔찌나 목걸이를 꼭 패용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 질병 상황까지 기록한다면 보다 빠른 응급처치에 결정적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글 김재욱(자유기고가) 도움말 홍성만(길동노인요양병원 원장) 일러스트 이은주

일단 응급 상황 발생시 노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파악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 충돌, 화재, 추락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또한 안전한 환경에 위치해 있는지 살핀 후 부상 상태를 파악하도록 한다. 치매 노인의 경우 인격적인 장애로 인한 폭력적 반응을 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침착한 대응도 필요하다.

두려움이나 공포심이 일반인에 비해 현격히 저하돼 있어 되레 과격한 행동을 보이기 쉬운 것이다. 또한 단기 기억 상실로 논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상황에 따라 대화보다는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것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치매 노인의 행동장애 대부분은 저녁 이후에 심해지며 이를 감추기 위해 특이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니 응급 처치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출혈과 골절 체크

출혈이 심한지 확인한다. 소독한 가제를 상처에 두껍게 대고 붓대로 강하게 맨다. 이 때 상처 부위가 심장 위치보다 높게 있을수록 효과가 좋다. 노인의 경우 출혈에 의한 쇼크를 일으킬 위험이 크므로 일단 안전한 곳으로 옮긴 다음 머리 부분을 약간 낮게 해 쇼크 방지 자세를 취해 준다. 또한 의류 등을 이용해 체온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좋다.



출혈, 골절 등 확인

골절이 있는지 확인한다. 일반인보다 뼈가 더 약한 노인의 경우 골절의 문제 유무 확인도 신경을 써야 한다. 골절이 의심되면 안전한 곳으로 옮기 되 다친 곳을 함부로 건드리거나 손상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골절로 인해 주변의 장기가 손상되었을지도 모르고 손상을 가중 시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심폐소생 응급법

기도가 열려 있는지 파악한다. 이마 위에 손을 얹어 눌러 머리를 뒤로 젖힌다. 턱을 앞으로 90도 정도 끌어올려 기도를 열어주되 위아래 이가 거의 맞닿을 정도까지 끌어올린다.



90도 가량 턱을 앞으로 올려 기도를 열어준다.

숨을 쉬고 있는지 파악한다. 기도 개방을 유지하고 이마에 얹은 손의 엄지와 검지로 코를 막아 준다. 입 언저리에 입술을 밀착시켜 충분히 불어넣기를 매회 2초간 실시한다. 환자의 코에 귀를 대고 가슴의 오르내림을 지켜본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가 환자의 입에 대고 천천히 공기를 불어 넣는다.



입을 떼고 환자의 가슴을 보면서 환자의 폐에서 공기가 나오는 소리를 듣는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구조 호흡을 계속해도 맥박이 없을 경우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심폐소생술은 구조 호흡에 흉부압박법을 결합시킨 형태다. 한쪽 무릎을 환자 어깨선에 맞추고 무릎 간격을 편하게 한 다음 환자 다리 쪽 손의 엄지와 검지로 늑골을 따라 명치부분으로 올라간다. 양쪽 늑골릉이 만나는 지점에 이르러 압박을 시작한다. 이때 압박횟수는 분당 80~100회로, 1.5초에 한번 꼴이다. 구조 호흡이나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때 주의할 점은 도중에 절대 포기하거나 5초 이상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노인 환자의 경우 이점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환자의 자세를 바꾼다든가 하는 특수한 경우에도 15초 이상 정지해서는 안 되며 상태 확인은 최초 1분 후, 다른 사람과 교대할 때, 그리고 수시로 하되 그 간격이 3~4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치매 노인이 있는 가정에서는 안전사고 및 위급한 경우를 항상 대비해 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건강과 안정은 치매 노인뿐만 아니라 가족 혹은 방문자를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전에 위험이 되는 모든 상황은 미리 파악해서 제거하도록 한다. 집안에서 발생하는 사고 혹은 위급한 경우의 가장 보편적인 유형은 신체적 건강의 이상이다. 무엇보다 노인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아둔다면 불시에 일어날 사고를 예상할 수 있다. 🌈

※ 주의사항: 총점이 8점 이상인 경우는 치매를 의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점수만으로 치매를 확정 진단할 수 없다. 의심이 들 경우 전문의와 상담하도록 하자.

TIP 치매 진단 리스트

내용	그렇지 않다 (0)	간혹(약간) 그렇다(1)	자주(많이) 그렇다(2)
1.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2. 며칠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잊는다.			
3. 반복되는 일상생활에 변화가 생겼을 때 금방 적응하기 힘들어한다.			
4. 본인에게 중요한 사항을 잊는다. (예 : 배우자의 생일, 결혼기념일, 제삿날 등)			
5. 어떤 일을 해 놓고 잊어버려 반복해서 또 한다.			
6. 약속을 해놓고 잊는다.			
7. 이야기 도중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잊는다.			
8. 하고 싶은 말이나 표현을 바로 떠올리지 못한다.			
9. 물건 이름을 금방 생각내지 못한다.			
10. TV 프로그램의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어한다.			
11. 전에 가 봤던 장소를 기억하지 못한다.			
12.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13. 계산 능력이 떨어진다.			
14. 돈 관리하는 데 실수가 많아진다.			
15. 과거에 쓰던 기구의 사용이 서툴러진다.			